

# 경쟁력 있는 '작은작품'에 꾸준한 지원·투자 필요

## 고품격 문화수도를 디자인하자

(8) 광주 대표 문화상품을 만들자

'자스민 광주' '빛고을 아리랑' 등 단발성 공연 안타까워  
'브랜드 페스티벌' 확대 필요... 대인시장, 문화투어 가능성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은 광주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프로젝트였다. 광주문화재단을 통해 직접 사업을 추켜들기도 했고, 시립예술단체들에게도 작품 제작을 독려했다.

하지만 결과물에 대한 평가들은 냉혹했다. 상대적으로 대형 제작비가 들어가는 작품이었던 터라 지역 문화계의 관심이 높았지만 2011년 에디버러 공연 비용까지 포함해 9억원이 넘게 든 '자스민 광주'와 지난해 2억 5000만원의 제작비를 들인 '남을 위한 행진곡'은 모두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두 작품 모두 재공연을 갖지 못하고, 사장되는 운명을 맞았다.

또 하나의 대형 공연이었던 광주세계아리랑축제 주제공연 '빛고을 아리랑' 역시 완성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전체 축제 예산 중 3억 7000만원이 투입된 작품이었지만 이 역시 단발로 그치고 말았다.

꾸준한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쳐 '지속 공연 가능성'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셈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고 문화 상품을 만드는 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꼭 풀어야 할 숙제다.

올해 광주시는 따로 브랜드 작품을 제작하지 않는다. 대신 10월에 열리는 광주세계아리랑축제 주제공연을 준비 중이다. 현재 주제공연의 극본은 보성 출신으로 연극 '목란 언니', '빨' 위등을 쓴 김은성씨가 맡았으며 연출가는 광주 출신으로 '푸르는 날에'를 만든 고선웅, 극단 '골목길' 대표 박근형씨 등이 물망에 올라 있다.

광주시립무용단이 하반기에 올릴 발레 공연은 지난 2011년부터 TF팀을 꾸려 2년 넘게 준비해온 작품이다.

'자스민 광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제작 기간이 짧아 쇼케이스 등 작품 개발 과정을 공유할 시간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오랜 제작 기간을 가진 무용단의 작품이 어떤 모습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술 부문에서는 광주비엔날레와 디자인 비엔날레가 광주는 물론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 문화 상품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는 데 반해 공연 장르는 대표 상품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다.

시가 대표 축제로 밀고 있는 '페스티벌 오!' '광주'의 브랜드 페스티벌이나 정음성극제, 전곡합창제 등은 아직 역부족이다. 특히 1억 8000만원으로 행사를 치르는 브랜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건 광주가 풀어야 할 숙제다. 아쉬움이 많았던 '남을 위한 행진곡' 공연 모습.

페스티벌의 경우 광주를 대표하는 규모 있는 페스티벌을 치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립예술단 공연을 끼워넣어 어설피게 외연을 넓히기 보다는 예산 확보를 위해 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며 무엇보다 작품 선구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올해 라인업의 경우 예산상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비슷한 성향의 작품들로 꾸러지는 등 식상한 면이 많았다.

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 이외에도 지역 예술 단체들의 경쟁력 있는 '작은 작품'과 행사들을 꾸준히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광주연극협회 진행하는 '평화연극제'는 광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프로젝트 중 하나다. 해마다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만 의미있는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야외공연을 시도한 올해의 경우 광주공원을 무대로 활용하면서 시민들에게 색다른 느낌을 전했다.

광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공간은 대인시장이다. 광주비엔날레가 처음 '발견'했던 대인시장은 이후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면서 '문화투어'의 가능성을 보였다. 올해도 매일 한차례씩 야시장을 여는 등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지역문화계 인사는 "대표 문화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었던 '자스민 광주' 등 기대를 받았던 프로젝트가 실패한 게 안타깝다"며 "긴 호흡을 갖고 지원과 투자를 지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서영무용단 '작침(鶴枕)'

## "춤의 유혹이 시작된다"

내일 '광주무용제' 4개팀 경연... 수상작 전국무용제 출전

광주 무용계는 2년 연속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무용(舞)의 자존감을 높였다.

2011년에는 박선희씨가 안무한 광주로발레단의 '티핑 포인트 37.5'가 대통령상, 연기상(오윤환), 무대기술상을, 지난해에는 임지영&광주현대무용단의 '자메바'가 대통령상과 안무상(김미선), 연기상(김미선)을 받았다. 지금까지 광주는 대통령상 7번, 금상 4회, 은상 4회를 수상했다.

올해 순천에서 열리는 제22회 전국무용제 광주 대표를 선정하는 제22회 광주무용제가 오는 15일 오후 5시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무용협회(회장 김미숙)가 주최하는 이번 무용제에는 모두 4개팀이 출전, 경연을 펼친다.

나발래예술단(단장 한명선)은 학교폭력, 성적 문제, 가정불화 등 심각한 청소년 문제가 만연한 요즘 사회에 아직도 작은 희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반란-better days'를 무대에 올린다.

'W&A발레단'이 공연하는 'At one point-어느 순간'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아버지와 외로이 남겨진 딸이 영혼의 힘을 빌려 짧은 만남을 갖는 내용을 그린 작품이다. 광주시립무용단 상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우리·정아람씨가 공동 안무를 맡았으며 오윤환·구윤지·강병창씨 등이 출연한다.

광주현대무용단의 '이기주의'(안무 유길호)는 현대인의 본성인 이기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현대적인 춤사위로 풀어낸 작품으로 김현근·홍기준·홍예라·정유진씨 등이 출연한다.

그밖에 서영무용단은 한국 무용 '작침(鶴枕)'으로 경연에 참여한다.

작품 제목 '작침'은 까치가 동자를 볼 때 풀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집어 넣는 작은 돌멩이를 흔히 '까치베개'로 부른다. 서영씨가 안무를 맡았으며 장우영·손은혜·문무진씨 등이 출연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사랑노래 함께 불러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오늘 호남신학대 티브라운

'6월, 사랑을 부르다' 매일 두번째 주 금요일 함께 모여 노래하는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회장 황선숙), 14일 오후 7시 30분 호남신학대학교 티브라운에서 열리는 이번 달 주제는 '사랑을 노래함'이다.

함께 배워보는 노래는 홍윤숙 시에 김동환이 곡을 부친 '사랑아'(홍윤숙 시 김동환곡), 조병화 시 구희영 곡 '사랑은'이다. 또 김광수, 고재경, 윤민재, 나인희시 등 회원들이 '빛으로 다가온 사랑' '사랑하는 마음' '가시꽃 사랑' 등 사랑을 주제로 한 곡들을 선보인다.

초청성악가는 메조소프라노 강양은

교수(호남신학대학교·사진)다. '첫사랑의 꿈'(박목월시 김연준곡) '사랑아'(홍윤숙시 김동환곡)를 선사한다.

또 '그대', '불타는 강대나무, 떠나가는 배' '사랑', '사랑의 노래' '사랑하는 마음' 등 친숙한 노래를 함께 부르는 시간도 마련한다.

7월에는 조대병원에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cafe.daum.net/gjk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풍어 기원 '갯귀신제'가 열렸다

안판중 사진전... 17일까지 서울무역컨벤션센터

보성군 벌교읍 대포리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2일 '갯귀신제'가 열린다. 갯귀신제는 바다에 제사를 지내오면서 풍어를 기원하는 대포리 마을의 당제(堂祭) 명칭으로, 400여 년 전부터 전승되고 있는 남도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사진작가 안판중(64)씨가 17일까지 서울무역컨벤션센터 제3전시실에서 '남도의 여춘 대포리 갯귀신제'전을 주제로 12년 만에 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대포리 갯귀신제와 대포리 앞바다 풍광을 담은 사진 28점을 선보인다. 점점 잊히고 변해가는 남도의 문화를 지난 15년 동안 고집스럽게 카메라에 담은 작가의



열정이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안씨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위원 등을 지냈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본부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2-2655-3131. /김경민기자 kki@

## 여름밤, 클래식여행 떠나볼까

'광장음악회' 15일 남구 노대동 물빛공원

야외 클래식 음악회인 광장음악회가 15일 오후 8시 남구 노대동 물빛공원(진월지구 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이날 공연은 꿈꾸는 예술이 부르는 '반달' '따오기' '오빠생각' 등 동요메들리로 시작된다.

이어 메조소프라노 신은정이 정훈희의 '무인도'와 'Over the Rainbow', 테너 김백호가 조두남의 '옛노래'와 오페라 '투란도트' 삽입곡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들려준다.

여성 듀엣 이환희와 신은정, 남성 듀엣 김백호와 정찬경이 부르는 가곡도 기대되는 무대다.

마지막으로 꿈꾸는 예술의 'A love until the end of time' '축배의 노래'로 막을 내린다.

2006년 광주 금남공원에서 첫 무대를 시작한 광장음악회는 연주자들의 재능기부로 이어오다 올 들어 경비를 마련하지 못해 지난 4월 공연을 열지 못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이어졌고 지난 5월 첫 음악회를 시작했다. 이번 음악회는 삼성전자의 협찬으로 진행된다.

광장음악회는 앞으로도 매일 셋째주 토요일 공연을 열 계획이다. 문의 010-2038-3522.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 신앙으로 최고의 영어교육을, 필리핀에서 세계로 -

# CBS 필리핀 영어캠프

**방학중 단기집중 영어캠프**

- 일대일 수준별 집중 영어교육
- 1일 8시간 맞춤형 프로그램
- 신앙훈련을 겸한 영어연수
- 안전하고 수준 높은 생활관리 시스템
- 필리핀 주요명소 관광 및 문화체험
- 레벨 테스트 후 레벨별 수업진행

### 영어연수 모집요강

- 대상 : 초, 중, 고등학생
- 연수기간  
2013년 7월7일 ~ 8월17일 (6주)  
2013년 7월21일 ~ 8월17일 (4주)
- 연수비용  
6주:380만원 / 4주:260만원 (15세미만 입국비용, 공항세, 항공료 별도)  
-포함내역: 숙식비/관광 및 특별활동비/수업료/교재비/비자연장비
- 특전 : 형제, 자매 등록시 5%DC

**CBS 기독교 광주 방송 필리핀 영어캠프**  
상담문의 062-376-8500 // 062-376-8501  
www.cbaseduph.co.kr